

退溪 『啓蒙傳疑』의 五音六律에 관한 研究*

丁海任**

차례

- I. 序論
- II. 五音司日
- III. 六律司辰
- IV. 納音
- V. 結論

【국문초록】

퇴계 이황의 『啓蒙傳疑』에 전하는 五音 六律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五音은 日을 주관한다. 五音은 五行의 音聲으로 五行 중 土는 五音 중 宮音이 되고, 金은 商音이 되고, 木은 角音이 되고, 火는 徵音이 되고, 水는 羽音이 된다. 五音은 甲과 乙, 丙과 丁, 戊와 己, 庚과 辛, 壬과 癸의 10干에 배합하고 있다. 六律은 6陽律과 6陰呂를 통칭하고 辰을 주관한다. 12律呂 중 ①黃鍾 ③太簇 ⑤姑洗 ⑦蕤賓 ⑨夷則 ⑪無射은 6陽律은 각각 12辰 중 子, 寅, 辰, 午, 申, 戌의 6陽辰에 배합되고, 12律呂 중 ②大呂 ④夾鍾 ⑥仲呂 ⑧林鍾 ⑩南呂 ⑫應鍾은 6陰呂는 12辰 중 丑, 卯, 巳, 未, 酉, 亥의 6陰辰에 배합된다. 納音은 12辰과 5音의 배합과 隔八相生, 同類娶妻에 의하여 60音으로 이루어진다. 甲子는 金, 丙子는 水, 戊子는 火, 庚子는 土, 壬子는 木 등으로 각 辰에 干을 합하여 五行의 五音을 낳는다. 그리고 納音數에 따라 五行에 따르는 음이 생기게 되는데 4개의 天干地支의 수를 합하여 5로 나누어 나머지를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국악과 교수

수로 사용한다. 즉 金과 木은 스스로 소리가 나므로 木은 3, 金은 4로 河圖數인 本身數를 사용하고, 水가 土를 만나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水는 土의 本身數인 5를 사용하고, 火가 水를 만나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火는 水의 本身數인 1을 사용하고, 土가 火를 만나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土는 火의 本身數 2를 써서 音으로 삼는다. 이와 같이 되게는 『啓蒙傳疑』에서 五音과 六律을 漢代 상수학의 納音을 도입하여 설명함으로써 天地自然의 질서와 陰陽五行의 조화를 나타내는 독특한 退溪 상수학의 원리를 잘 나타내고 있다.

주제어

五音 六律 納音 隔八相生 同類娶妻

I. 序論

『啓蒙傳疑』는 조선 시대에, 退溪 李滉이 『易學啓蒙』¹⁾에 설명과 주석을 붙인 책으로 명종 12년(1557)에 간행되었다. 『啓蒙傳疑』는 ① 「本圖書」, ② 「原卦劃」, ③ 「明蓍策」, ④ 「考變占」의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啓蒙傳疑』 「本圖書」에 나오는 五音과 六律은 음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五音과 六律은 한국 음악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律呂는 ‘隔八相生法’, ‘娶妻生子法’ 등에 의하여 6陽律과 6陰呂로 생성되는데 12地支에 배합되고, 五音은 5行과 10天干에 배합된다. 그리고 12律呂와 五音의 결합으로 인하여 60律과 60調가 형성된다. 그리고 納音圖에 의하면 天干地支의 결합으로 ‘隔八相生’과 ‘同類娶妻’에 의해서 60甲子の 納音과 五行, 五音이 생성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啓蒙傳疑』, 『易學啓蒙』, 『尙書』,

1) 『易學啓蒙』은 송대의 성리학자 朱熹가 周易에 대하여 설명한 책.

『周易』, 『素問入式運氣論奧』, 『漢書』「律曆志」, 『呂氏春秋』, 『淮南子』, 『樂書』, 『樂學軌範』, 『禮記』, 『增補文獻備考』 등의 문헌을 중심으로 退溪의 『啓蒙傳疑』「本圖書」의 河圖·洛書를 근본으로 하는 五音·六律·納音의 관계를 한국음악에서 사용하는 五音과 六律, ‘隔八相生’, ‘律娶妻’-‘呂生子’, 60調 등의 기본적인 개념과 관련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II. 五音司日

五音은 日을 주관한다.

五音은 五行의 音聲이다. 五行 중 土는 五音 중 宮이 되고, 金은 商이 되고, 木은 角이 되고, 火는 徵가 되고, 水는 羽가 된다. 그러므로 이 그림에서는 단지 五行으로 구분하였는데 納音에 나타나 있다. 즉 曆家は 配日法에 사용하고, 陰陽家は 推數法에 사용한다.²⁾

五音은 宮·商·角·徵·羽로서 각각 五行 즉 土·金·木·火·水에 배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五行 중 土는 五音 중 宮이 되고, 五行 중 金은 五音 중 商이 되고, 五行 중 木은 五音 중 角이 되고, 五行 중 火는 五音 중 徵가 되고, 五行 중 水는 五音 중 羽가 된다. 이러한 五行의 音은 納音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五音과 五行의 관계는 『漢書』「律曆志」³⁾,

2) 李滉, 『啓蒙傳疑』「本圖書第一」-五音司日 12, “五音五行之音聲 土曰宮 金曰商 木曰角 火曰徵 水曰羽 故此圖 只分五行 而納音 見矣 卽曆家所用以配日 陰陽家所用以推數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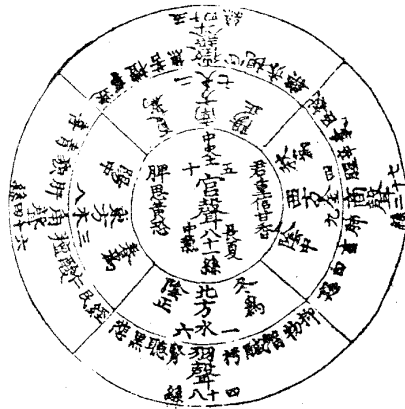
3) 班固, 『漢書』卷21上, 「律曆志」, 第1上 3a-4b, “聲者宮商角徵羽也……角觸也 物觸地而出戴芒角也 宮中也 居中央暢四方唱始施生爲四聲綱也 徵祉也 物盛大而聲祉也 羽宇也 物聚臧宇覆之也 夫聲者中於宮 觸於角 祉於徵 章於商 宇於羽 故四聲爲宮紀也 協之五行則角爲木 五常爲仁 五事爲貌 商爲金爲義爲言 徵爲火爲禮爲視 羽爲水爲智爲聽 宮爲土爲信

『樂學軌範』⁴⁾, 『增補文獻備考』⁵⁾ 등에서도 나타난다. 이 중에서 『樂學軌範』의 五聲圖를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爲思 以君臣民事物言之 則宮爲君 商爲臣 角爲民 徵爲事 羽爲物 唱和有象 故言君臣位事之體也 五聲之本生於黃鐘之律九寸爲宮 或損或益以定商角徵羽 九六相生陰陽之應也”

- 4) 成倪 등, 『樂學軌範』卷1. 13b, “宮中也 居中央 暢四方 唱始施生 爲四聲綱也 其性圓 其聲若牛之鳴窳 而主合 宮無爲而覆物 君之象也 足以御臣 其聲雄洪 調則政和國安 亂則其國危 其絲數八十一 三分損一下生徵 徵社也 物盛大而繁祉也 其性明而辨物 其聲若豕之負駭 而主分 徵出無而驗有 事之象也 足以成物 其聲倚倚戲戲然 調則百物理 亂則庶績隳 其絲數五十四 三分益一上生商 商章也 物成熟可 章度也 其性方 其聲若羊之離群而主張 商有爲而通物 臣之象也 足以治民 其聲鏘鏘踴踴然 調則刑法不作 威令行 亂則其官毀 其絲數七十二 三分損一下生羽 羽字也 物聚藏宇覆之也 其性潤而澤物 其聲若馬之鳴 野而主吐 羽因時而翕張 物之象也 足以致用 其聲詡詡然 調則倉廩實 庶物備 亂則其民憂 其財匱 其絲數四十八 三分益一上生角 角觸也 物觸而出載芒 其性直 其聲若雞之鳴木而主湧 角善觸而亂馭 民之象也 足以興事 其聲嘒嘒確確然 調則四民 亂則其民怨 其絲數六十四 而生變宮變徵也 其用則爲民經迭抑重 其位則爲左右上下中 其色則爲青黃赤白黑 其性則爲仁義禮智信 其情則爲喜怒哀憂恐 其事則爲貌言視聽思 其味則爲甘辛酸苦鹹 其臭則爲香腥膻焦朽 在天運而爲五氣 在地列而爲五行 在人竅而爲五臟 則中聲所止 無往不在焉”
- 5) 『增補文獻備考』卷90. 「樂考」 17a~18a, “宮中也 居中央 暢四方 唱始施生 爲四聲綱也 其性圓 其聲若牛之鳴窳 而主合 宮無爲而覆物 君之象也 足以御臣 其聲雄洪 調則政和國安 亂則其國危 其絲數八十一 三分損一下生徵 徵社也 物盛大而繁祉也 其性明而辨物 其聲若豕之負駭 而主分 徵出無而驗有 事之象也 足以成物 其聲倚倚戲戲然 調則百物理 亂則庶績隳 其絲數五十四 三分益一上生商 商章也 物成熟可 章度也 其性方 其聲若羊之離群而主張 商有爲而通物 臣之象也 足以治民 其聲鏘鏘踴踴然 調則刑法不作 威令行 亂則其官毀 其絲數七十二 三分損一下生羽 羽字也 物聚藏宇覆之也 其性潤而澤物 其聲若馬之鳴 野而主吐 羽因時而翕張 物之象也 足以致用 其聲詡詡然 調則倉廩實 庶物備 亂則其民憂 其財匱 其絲數四十八 三分益一上生角 角觸也 物觸而出載芒 角也 其性直 其聲若雞之鳴木而主湧 角善觸而亂馭 民之象也 足以興事 其聲嘒嘒確確然 調則四民 亂則其民怨 其絲數六十四 而生變宮變徵也 其用則爲民經迭抑重 其位則爲左右上下中 其色則爲青黃赤白黑 其性則爲仁義禮智信 其情則爲喜怒哀憂恐 其事則爲貌言視聽思 其味則爲甘辛酸苦鹹 其臭則爲香腥膻焦朽 在天運而爲五氣 在地列而爲五行 在人竅而爲五臟 中聲所止 無往不在焉”

그림 1) 『樂學軌範』 五聲圖



위 그림1) 『樂學軌範』 五聲圖에 의하면 5聲은 天數와 地數, 生數와 成數의 결합에 의한 河圖의 수와 5方에 따른 5行 등에 배합되어 있다. 5聲 중 宮聲은 5行 중 土 [5와 10, 중앙], 商聲은 金 [4와 9, 서방], 角聲은 木 [3과 8, 동방], 徵聲은 火 [2와 7, 남방], 羽聲은 水 [1과 6, 북방] 에 해당한다. 그리고 5聲 [宮·商·角·徵·羽] 은 5用, 5色, 5臟, 5味 5臭, 5情, 5事, 5象, 5常, 5獸 등에 배합되어 있다.

또한 『呂氏春秋』⁶⁾, 『禮記』「月令」⁷⁾, 『淮南子』「時則訓」⁸⁾의 문헌에서도

6) 呂不韋, 『呂氏春秋』 卷1~12, “正月紀其日甲乙 其音角 律中太簇 其數八…在木 二月紀其日甲乙 其音角 律中夾鍾 其數八…在木 三月紀其日甲乙 其音角 律中姑洗 其數八…在木 四月紀其日丙丁 其音徵 律中仲呂 其數七…在火 五月紀其日丙丁 其音徵 律中蕤賓 其數七…在火 六月紀其日丙丁 其音徵 律中林鍾 其數七…在火 中央土 其日戊己 其帝黃帝 其音宮 律中黃鍾之宮 其數五 七月紀其日庚辛 其音商 律中夷則 其數九…在金 八月紀其日庚辛 其音商 律中南呂 其數九…在金 九月紀其日庚辛 其音商 律中無射 其數九…在金 十月紀其日壬癸 其音羽 律中應鍾 其數六…在水 十一月紀其日壬癸 其音羽 律中黃鍾 其數六…在水 十二月紀其日壬癸 其音羽 律中大呂 其數六…在水”

7) 『禮記』 卷14~17. 「月令」, “孟春之月, 其日甲乙, 其音角, 律中太簇, 其數八. 仲春之月,

五聲과 五行의 관계가 잘 나타나 있다. 이것을 표1)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五聲과 五行, 天干

五聲	五行	天干	數		12律	12月	4時	방위
宮	土	戊·己	5	5·10				중앙
角	木	甲·乙	8	3·8	太簇	정월	孟春	동
					夾鍾	2월	仲春	
					姑洗	3월	季春	
徵	火	丙·丁	7	2·7	仲呂	4월	孟夏	남
					蕤賓	5월	仲夏	
					林鍾	6월	季夏	
商	金	庚·辛	9	4·9	夷則	7월	孟秋	서
					南呂	8월	仲秋	
					無射	9월	季秋	
羽	水	壬·癸	6	1·6	應鍾	10월	孟冬	북
					黃鍾	11월	仲冬	
					大呂	12월	季冬	

其日甲乙, 其音角 律中夾鍾, 其數八. 季春之月, 其日甲乙, 其音角, 律中姑洗, 其數八. 孟夏之月, 其日丙丁, 其音徵, 律中中呂, 其數七. 仲夏之月, 其日丙丁, 其音徵, 律中蕤賓, 其數七. 季夏之月, 其日丙丁, 其音徵, 律中林鍾, 其數七. 孟秋之月, 其日庚辛, 其音商, 律中夷則, 其數九. 中央土, 其日戊己, 其音宮, 律中黃鍾之宮, 其數五. 仲秋之月, 其日庚辛, 其音商, 律中南呂, 其數九. 季秋之月, 其日庚辛, 其音商, 律中無射, 其數九. 孟冬之月, 其日壬癸, 其音羽, 律中應鍾, 其數六. 仲冬之月, 其日壬癸, 其音羽, 律中黃鍾, 其數六. 季冬之月, 其日壬癸, 其音羽, 律中大呂, 其數六”

- 8) 劉安, 『淮南子』卷5, 『時則訓』, 1a~17b, “孟春之月 招搖指寅 其位東方 其日甲乙 盛德在木 其音角 律中太簇 其數八 仲春之月 招搖指卯 其位東方 其日甲乙 其音角 律中夾鍾 其數八 季春之月 招搖指辰 其位東方 其日甲乙 其音角 律中姑洗 其數八 孟夏之月 招搖指巳 其位南方 其日丙丁 盛德在火 其音徵 律中仲呂 其數七 仲夏之月 招搖指午 其位南方 其日丙丁 其音徵 律中蕤賓 其數七 季夏之月 招搖指未 其位中央 其日戊己 盛德在土 其音宮 律中百鍾 其數五 孟秋之月 招搖指申 其位西方 其日庚辛 盛德在金 其音商 律中夷則 其數九 仲秋之月 招搖指酉 其位西方 其日庚辛 其音商 律中南呂 其數九 季秋之月 招搖指戌 其位西方 其日庚辛 其音商 律中無射 其數九 孟冬之月 招搖指亥 其位北方 其日壬癸 盛德在水 其音羽 律中應鍾 其數六 仲冬之月 招搖指子 其位北方 其日壬癸 其音羽 律中黃鍾 其數六 季冬之月 招搖指丑 其位北方 其日壬癸 其音羽 律中大呂 其數六”

표 1)과 같이 즉 五聲 중 宮聲은 五行 중 중앙의 土에 해당하고, 그 日은 戊·己이고, 黃鍾의 宮, 그리고 그 수는 5이다. 黃鍾의 宮은 宮聲이고 중앙에 위치하여 동서남북으로 연결하여 12율을 주관한다. 五聲 중 角聲은 五行 중 木에 해당하고, 그 日은 甲·乙이고, 太簇 [정월, 孟春] 과 夾鍾 [2월, 仲春] 그리고 姑洗 [3월, 季春], 그리고 그 수는 8이다. 五聲 중 徵聲은 五行 중 火에 해당하고, 그 日은 丙·丁이고, 仲呂⁹⁾ [4월, 孟夏] 와 蕤賓 [5월, 仲夏] 그리고 林鍾 [6월, 季夏], 그리고 그 수는 7이다. 五聲 중 商聲은 五行 중 金에 해당하고, 그 日은 庚·辛이고, 夷則 [7월, 孟秋] 과 南呂 [8월, 仲秋] 그리고 無射 [9월, 季秋], 그리고 그 수는 9이다. 五聲 중 羽聲은 五行 중 水에 해당하고, 그 日은 壬·癸이고, 應鍾 [10월, 孟冬] 와 黃鍾 [11월, 仲冬] 그리고 大呂 [12월, 季冬], 그리고 그 수는 6이다. 이와 같이 5聲은 각각 五行, 天干, 12월령, 12월, 12절후, 그리고 河圖의 數 중 5, 6, 7, 8, 9에 배합된다. 이와 같이 五聲은 河圖의 數에 배합되어 있다. 河圖는 『尙書』의 「周書」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5,000여 년 전 伏犧씨가 처음으로 왕이 되어 백성을 다스릴 적에 황하에서 머리는 용이고 몸은 말의 형상을 한 龍馬가 나왔다고 한다. 그 龍馬의 등에는 1에서 10에 이르는 수를 나타낸 무늬의 그림이 나왔는데 그것을 河圖라고 이른다¹⁰⁾고 하였다. 河圖는 그림 2)와 같다.

9) 『呂氏春秋』에서는 仲呂, 『禮記』 「月令」에서는 中呂라고 서로 다르게 적혀 있으나 같은 음이다.

10) 『尙書』 「周書」, “伏犧王天下 龍馬出河遂 則其文以畫八卦 謂之河圖”

그림 2) 河圖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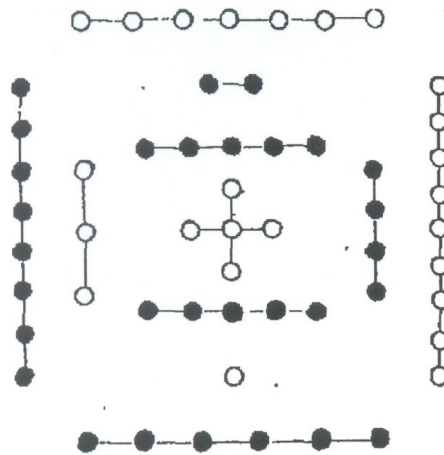


그림 2)와 같이 河圖는 1에서 10까지의 수로 이루어져 있다. 生數 1·2·3·4·5 등은 안쪽에 있고, 成數 6·7·8·9·10 등은 바깥쪽에 있으며, 成數는 生數에 5를 더한 수로 이루어진다. 1·3·5·7·9 등의 陽數는 흰 점으로 나타내고, 2·4·6·8·10 등의 陰數는 검은 점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河圖數는 성수와 생수의 음양배합으로 동·서·남·북·중앙의 5方に 위치한다. 즉, 生數 1 [양수] 과 成數 6 [음수] 은 합하여 북방에 있고, 生數 2 [음수] 와 成數 7 [양수] 은 합하여 남방에 있고, 生數 3 [양수] 과 成數 8 [음수] 은 합하여 동방에 있고, 生數 4 [음수] 와 成數 9 [양수] 는 합하여 서방에 있고, 生數 5 [양수] 와 成數 10 [음수] 은 합하여 중앙에 있다. 여기에서 『啓蒙傳疑』「本圖書」-河圖行合에서 河圖는 陰陽의 氣와 五行의 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11) 朱熹, 『周易本義』圖目 1b.

알 수 있다. 즉 氣는 음과 양의 두 가지로 나타내고 行은 1,3,5,7,9 등 양의 운행 [行] 과 2,4,6,8,10 등 음의 운행 [行] 등 음양의 氣의 합으로 五行을 이루고 있다. 河圖에서는 水生木,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의 五行相生으로 이루어져 있다. 河圖의 수를 나타내면 표2)와 같다.

〈표 2〉 河圖의 數

河圖數	생수	성수	방위	오행
1(양수)과 6(음수)	1	6(1+5)	북	水
2(음수)와 7(양수)	2	7(2+5)	남	火
3(양수)과 8(음수)	3	8(3+5)	동	木
4(음수)와 9(양수)	4	9(4+5)	서	金
5(양수)와 10(음수)	5	10(5+5)	중앙	土

또한 『周易』「繫辭上傳」에 의하면 1에서 10의 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天 1, 地 2, 天 3, 地 4, 天 5, 地 6, 天 7, 地 8, 天 9, 地 10으로, 天數는 1, 3, 5, 7, 9의 5개이고, 地數는 2, 4, 6, 8, 10의 5개이다. 5개의 자리가 서로 얻고 각각 음양의 합이 이루어진다. 天數를 1, 3, 5, 7, 9를 다 합하면 25이고, 地數는 2, 4, 6, 8, 10을 다 합하면 30이다. 무릇 天地의 數를 다 합하면 55가 되니 이것으로 변화를 이루고 귀신을 행한다.¹²⁾

12) 『周易』「繫辭上傳」제9장. “天一, 地二, 天三, 地四, 天五, 地六, 天七, 地八, 天九, 地十. 天數五, 地數五, 五位相得而各有合. 天數二十有五, 地數三十, 凡天地之數五十有五. 此所以成變化而行鬼神也.”

위와 같이 1에서 10까지의 수는 1, 3, 5, 7, 9의 天數와 2, 4, 6, 8, 10의 地數로 나뉘어져 있다. 天數는 陽數이고, 地數는 陰數인데 이 天地陰陽의 수가 서로 합하여 五位 즉 五行으로 변화된다. 즉 天數 1과 地數 6이 합하여 五行 중 水가 되고, 地數 2와 天數 7이 합하여 五行 중 火가 되고, 天數 3과 地數 8이 합하여 五行 중 木이 되고, 地數 4와 天數 9가 합하여 五行 중 金이 되고, 天數 5와 地數 10이 합하여 五行 중 土가 된다. 陽數나 天數는 奇數라고 하고, 陰數나 地數는 偶數라고 한다.

여기에서 『주역』이 강조하는 입장은 기수와 우수의 분별이 아니라 서로 합하여 움직이는 상호통일 혹은 待對와 內涵의 작용이다. 기수와 우수가 서로 결합하여야만 변화의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¹³⁾

『漢書』 「律曆志」는 5聲과 6律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天數의 가운데 수는 5이고, 5는 聲의 수이다. 5聲 중의 첫 번째 자리가 宮聲이고, 宮聲은 5聲 중에서 가장 크다. 地數의 가운데 수는 6이고 6은 律의 수이다. 律에는 형상이 있고 색이 있다. 색은 黃 위에 5色보다 더성한 것이 없다.¹⁴⁾

위와 같이 聲의 수 5는 天數 1·3·5·7·9 중의 가운데 수이고, 5聲은 宮聲·商聲·角聲·徵聲·羽聲이고, 5색은 黃색·청색·백색·흑색·적색이다. 그리고 律의 수 6은 地數 2·4·6·8·10 중의 가운데 수이다. 6律은 6陽律과 6陰呂를 의미한다. 6陽律은 黃鍾·太簇·姑洗·蕤賓

13) 정병석, 「주역에 대한 퇴계의 의리적 관점」, 『퇴계학보』제115집, 퇴계학연구원, 2004. 110쪽.

14) 班固, 『漢書』 卷21. 「律曆志」, 第1上 5ab, “天之中數五 五爲聲 聲上宮五聲莫大焉 地之中數六 六爲律 律有形有色 色上黃五色莫盛焉”

·夷則·亡射이고, 6陰呂는 大呂·夾鍾·仲呂·林鍾·南呂·應鍾이다. 따라서 5聲과 6律은 天地·陰陽의 조화와 中을 강조하고 있다.

Ⅲ. 六律司辰

『啓蒙傳疑』에 의하면

六律이 辰을 주관한다. 黃鍾은 子, 太簇는 寅, 姑洗은 辰, 蕤賓은 午, 無射은 戌 등 六律은 陽辰을 맡는다. 大呂는 丑, 夾鍾은 卯, 仲呂는 巳, 林鍾은 未, 南呂는 酉, 應鍾은 亥 등 六呂는 陰辰을 맡는다.¹⁵⁾

여기에서 六律은 六律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六律과 六呂를 의미한다. 六律만 나타내고 六呂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六呂는 음으로서 양의 六律을 따르는 것으로 간주되어 생략된 것이라고 본다. 六律은 양에 속하고 六呂는 음에 속한다. 六律은 ①黃鍾·③太簇·⑤姑洗·⑦蕤賓·⑨夷則·⑪無射 등으로 각각 12辰 중 子·寅·辰·午·申·戌의 6陽辰에 배합된다. 그리고 六呂는 ②大呂·④夾鍾·⑥仲呂·⑧林鍾·⑩南呂·⑫應鍾 등으로 각각 12辰 중 丑·卯·巳·未·酉·亥의 6陰辰에 배합된다.

『漢書』「律曆志」¹⁶⁾에 의하면 12월 중 6律은 陽이 되고, 6呂는 陰이

15) 『啓蒙傳疑』「本圖書第一」六律司辰, “黃鍾子 太簇寅 姑洗辰 蕤賓午 夷則申 無射戌 六律司陽辰也 大呂丑 夾鍾卯 仲呂巳 林鍾未 南呂酉 應鍾亥 六呂司陰辰也”

16) 班固, 『漢書』卷21上, 「律曆志」4b~5a, “律十有二陽六爲律陰六爲呂 律以統氣類物 一曰黃鍾 二曰太簇 三曰姑洗 四曰蕤賓 五曰夷則 六曰亡射 呂以旅陽宣氣 一曰林鍾 二曰南呂 三曰應鍾 四曰大呂 五曰夾鍾 六曰中呂”,

된다. 6陽律은 黃鍾·太簇·姑洗·蕤賓·夷則·亡射¹⁷⁾이고, 六陰呂는 林鍾·南呂·應鍾·大呂·夾鍾·仲呂이다. 12올리는 黃鍾→林鍾→太簇→南呂→姑洗→應鍾→蕤賓→大呂→夷則→夾鍾→亡射→仲呂의 순서로 생성된다.

또한 『樂書』¹⁸⁾에 의하면 12律은 6律인 6陽聲과 6同의 6陰聲으로 나누어 올리의 차서에 따라 12辰과 12월과 배합되어 있다. 즉 12율 중 黃鍾[子, 11월]·太簇[寅, 1월]·姑洗[辰, 3월]·蕤賓[午, 5월]·夷則[申, 7월]·無射[戌, 9월] 등 六律은 6陽辰에 배합되고 大呂[丑, 12월]·夾鍾[卯, 2월]·小呂¹⁹⁾[巳, 4월]·函鍾²⁰⁾[未, 6월]·南呂[酉, 8월], 應鍾[亥, 10월] 등 6同²¹⁾은 6陰辰에 배합된다.

그리고 『樂學軌範』에 의하면 律呂의 생성순서에 따라 6律은 6陽辰에 배합하고, 6呂는 6陰辰에 배합하는데 그림 3)과 같다.

17) 亡射은 無射이다.

18) 陳暘, 『樂書』卷41. 1b~2a, “先王制六律六同之器 以合六陰六陽之聲 黃鍾太簇姑洗蕤賓夷則無射六陽聲也 大呂應鍾南呂函鍾小呂夾鍾六陰聲也 … 黃鍾子之氣十一月建焉 而辰在星紀 大呂丑之氣十二月建焉 而辰在玄枵 太簇寅之氣正月建焉 而辰在娵訾 應鍾亥之氣十月建焉 而辰在析木 姑洗辰之氣三月建焉 而辰在大梁 南呂酉之氣八月建焉 而辰在壽星 蕤賓午之氣五月建焉 而辰在鶉首 林鍾未之氣六月建焉 而辰在鶉火 夷則申之氣七月建焉 而辰在鶉尾 中呂巳之氣四月建焉 而辰在實沈 無射戌之氣九月建焉 而辰在大火 夾鍾卯之氣二月建焉 而辰在降婁”

19) 小呂는 4월에 陰이 처음으로 싹트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으로 仲呂이다. 陳暘, 『樂書』卷100. 3a,

20) 函鍾은 여름이 만물을 덮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고 林鍾이다. 陳暘, 『樂書』卷41. 1b~2a.

21) 同은 陰의 情이 陽과 같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陳暘, 『樂書』卷46. 2b.

그림 3) 陽律陰呂在位圖²²⁾



그림 3)의 陽律陰呂在位圖에 의하면 黃鍾[子], 林鍾[丑], 太簇[寅], 南呂[卯], 姑洗[辰], 應鍾[巳], 蕤賓[午], 大呂[未], 夷則[申], 夾鍾[酉], 無射[戌], 仲呂[亥] 등으로 律呂의 생성순서에 따라 양율이 음려를 낳고, 음려가 양율을 낳는 음양의 조화는 6律은 6陽辰에 배합하고, 6呂는 6陰辰에 배합하는 天地自然의 이치를 따른 것이다. 이것은 『律呂新書』²³⁾와 같다.

22) 『樂學軌範』권1, 12a.

23) 『律呂新書』‘黃鍾生十一律’第三, “案黃鍾生十一律 子寅辰午申戌六陽辰皆下生 丑卯己未西亥六陰辰皆上生 其上以三歷十二辰者皆黃鍾之全數 其下陰數以倍者三分本律而損其一也 陽數以四者三分本律 而增其一也 六陽辰當位自得六陰辰 則居其衝 其林鍾南呂應鍾三呂在陰無增損也 其大呂夾鍾仲呂三呂在陽 則用倍數 方與十二月之氣相應 蓋陰之從陽自然之理也”.

이혜구 역주, 『新譯樂學軌範』, 국립국악원, 2000, 45쪽.

IV. 納音

納音圖는 『素問』²⁴⁾에 이르기를

이것은 돌아가며 서로 涵이 되는 법이다. 하나의 辰에 각각 五音이 포함되어 있어 12辰에 모두 60音이 들어있다. 예를 들면 子의 辰에 甲子는 金, 丙子는 水, 戊子는 火, 庚子는 土, 壬子는 木과 같은 것이다.²⁵⁾

納音圖는 12辰과 五音의 배합에 의하여 60音으로 이루어진다. 12辰²⁶⁾은 子와 丑, 寅과 卯, 辰과 巳, 午와 未, 申과 酉, 戌과 亥 등으로 陽辰과 陰辰의 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10干은 甲과 乙, 丙과 丁, 戊와 己, 庚과 辛, 壬과 癸 등으로 음양으로 배합하고 있다. 그러므로 甲子는 金音, 丙子는 水音, 戊子는 火音, 庚子는 土音, 壬子는 木音 등으로 각 干에 辰을 합하여 金音·水音·火音·土音·木音 등 五音을 사용하고 있다. 즉 納音에서 사용하는 五音은 음악에서 사용하는 宮·商·角·徵·羽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金·水·火·土·木 등 五行의 五音을 명칭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퇴계는 오음육율을 오행, 수에 국한하지 않고 60갑자 납음 법으로 연결하여 한대상수학까지 연결하는 매우 독특한 퇴계의 상수학에 대한 철학을 알 수 있다. 또한 퇴계는 자연법칙으로써의 상수와 술수적

24) 『素問』은 秦漢 때의 학자가 황제에 가탁하여 지은 최고의 醫書로서 皇帝素問이라고도 한다.

『유학대사전』, 유교사건편찬위원회, 1990, 752쪽.

25) 『素問入式運氣論奧』, 上卷, 論納音第四. “納音圖見素問, 其說曰此乃旋相爲宮之法也, 而一辰之中, 每含五音十二辰, 共納六十音也, 謂如子之一辰, 甲子金, 丙子水, 戊子火, 庚子土, 壬子木, 是也”.

26) 辰은 地支를 이른다.

인 상수를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주자가 인정하지 않은 한대상수를 수용하는데 있어서도 『주역』에서 상을 취하여 기계적인 법칙을 설명하는 준거가 된다고 믿었다.²⁷⁾

納音圖는 『素問入式運氣論奧』의 納音之圖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納音圖는 다음 그림4)와 같다.

그림 4) 納音圖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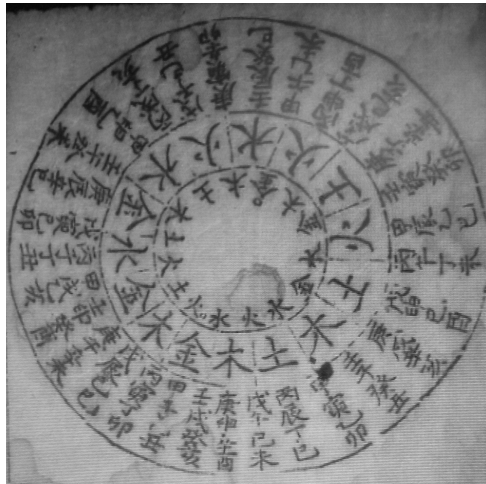


그림 4)의 納音圖는 12地支와 10天干을 배합한 60甲子を 納音五行에 배합하고 있다. 12辰은 子와 丑, 寅과 卯, 辰과 巳, 午와 未, 申과 酉, 戌과 亥 등으로 陽辰과 陰辰이 배합되어 있다. 그리고 10干은 甲과 乙, 丙

27) 김영남, “주자와 이퇴계의 주역해석에서 보이는 상수의 의미”, 『한국사상과 문화』 제11집, 수덕문화사, 2001, 70쪽.

28) 納音圖, : 李滉, 『啓蒙傳疑』 10쪽.

과 丁, 戊와 己, 庚과 辛, 壬과 癸으로 음양이 배합되어 있다. 天干과 地支 중 양이 음과 짝하여 오행·오음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것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陽의 干支인 甲子〔陽金〕와 陰의 干支인 乙丑〔陰金〕은 金이 되고,
 陽의 干支인 丙寅〔陽火〕과 陰의 干支인 丁卯〔陰火〕는 火가 되고,
 陽의 干支인 戊辰〔陽木〕과 陰의 干支인 己巳〔陰木〕는 木이 되고,
 陽의 干支인 庚午〔陽土〕와 陰의 干支인 辛未〔陰土〕는 土가 되고,
 陽의 干支인 壬申〔陽金〕과 陰의 干支인 癸酉〔陰金〕는 金이 되고,
 陽의 干支인 甲戌〔陽火〕과 陰의 干支인 乙亥〔陰火〕는 火가 된다.

陽의 干支인 丙子〔陽水〕와 陰의 干支인 丁丑〔陰水〕은 水가 되고,
 陽의 干支인 戊寅〔陽土〕과 陰의 干支인 己卯〔陰土〕는 土가 되고,
 陽의 干支인 庚辰〔陽金〕과 陰의 干支인 辛巳〔陰金〕는 金이 되고,
 陽의 干支인 壬午〔陽木〕와 陰의 干支인 癸未〔陰木〕는 木이 되고,
 陽의 干支인 甲申〔陽水〕과 陰의 干支인 乙酉〔陰水〕는 水가 되고,
 陽의 干支인 丙戌〔陽土〕과 陰의 干支인 丁亥〔陰土〕는 土가 된다.

陽의 干支인 戊子〔陽火〕와 陰의 干支인 己丑〔陰火〕은 火가 되고,
 陽의 干支인 庚寅〔陽木〕과 陰의 干支인 辛卯〔陰木〕는 木이 되고,
 陽의 干支인 壬辰〔陽水〕과 陰의 干支인 癸巳〔陰水〕는 水가 되고,
 陽의 干支인 甲午〔陽金〕와 陰의 干支인 乙未〔陰金〕는 金이 되고,
 陽의 干支인 丙申〔陽火〕과 陰의 干支인 丁酉〔陰火〕는 火가 되고,
 陽의 干支인 戊戌〔陽木〕과 陰의 干支인 己亥〔陰木〕는 木이 된다.

陽의 干支인 庚子〔陽土〕와 陰의 干支인 辛丑〔陰土〕은 土가 되고,
 陽의 干支인 壬寅〔陽金〕과 陰의 干支인 癸卯〔陰金〕는 金이 되고,
 陽의 干支인 甲辰〔陽火〕과 陰의 干支인 乙巳〔陰火〕는 火가 되고,
 陽의 干支인 丙午〔陽水〕와 陰의 干支인 丁未〔陰水〕는 水가 되고,
 陽의 干支인 戊申〔陽土〕과 陰의 干支인 己酉〔陰土〕는 土가 되고,
 陽의 干支인 庚戌〔陽金〕과 陰의 干支인 辛亥〔陰金〕는 金이 된다.

陽의 干支인 壬子〔陽木〕와 陰의 干支인 癸丑〔陰木〕은 木이 되고,
 陽의 干支인 甲寅〔陽水〕과 陰의 干支인 乙卯〔陰水〕는 水가 되고,
 陽의 干支인 丙辰〔陽土〕과 陰의 干支인 丁巳〔陰土〕는 土가 되고,
 陽의 干支인 戊午〔陽火〕와 陰의 干支인 己未〔陰火〕는 火가 되고,
 陽의 干支인 庚申〔陽木〕과 陰의 干支인 辛酉〔陰木〕는 木이 되고,
 陽의 干支인 壬戌〔陽水〕과 陰의 干支인 癸亥〔陰水〕는 水가 된다.

그리고 甲子乙丑은 오행 중 金인데 金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金의 소리가 가장 드러나기 때문²⁹⁾이라고 하였는데 남음을 오행의 소리와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독특하다. 한국악기는 재료에 따라 八音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쇠로 만들어진 악기는 金部, 돌로 만들어진 악기는 石部, 실로 만들어진 악기는 絲部, 대나무로 만들어진 악기는 竹部, 바가지로 만들어진 악기는 匏部, 흙으로 만들어진 악기는 土部, 가죽으로 만들어진 악기는 革部, 나무로 만들어진 악기는 木部 등 8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에서 金部는 쇠로 만들어진 악기로 編鐘, 特鐘, 方響 등이 있

29) 『啓蒙傳疑』「本圖書第一」, “所以金先者, 五行之中, 金聲最彰矣, 支干自東右行向南, 五音如四而右行(當左疑作)行向南, 陽生於子, 所以下生, 陰生於午, 所以上生, 謂天氣下降, 地氣上升也, 所生止三者, 三元之義”

는데 다른 악기에 비해 두드러지게 센 소리가 난다.

1. 同類娶妻

퇴계는 納音에서 『漢書』「律曆志」의 同類娶妻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漢書』「律曆志」에 의하면 同類娶妻와 隔八相生은 納音法이다. 같은 종류는 처에게 장가든다. [同類娶妻] 이룰테면 甲과 子의 干支가 모두 陽에 속하므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陰에 속하는 乙과 丑의 干支에 장가든다. 나머지 간지도 이와 같다.³⁰⁾

이와 같이 納音法에서 同類娶妻는 陽의 干支가 陰의 干支에 장가드는 음양의 조화로서 부부의 인사적인 관계로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律呂의 생성에 있어서도 陽律은 陰呂를 낳는 음양의 조화가 나타나는데 『周禮』와 『漢書』「律曆志」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周禮』에 의하면

같은 자리 [同位] 는 남편과 아내 [夫妻] 를 상징하고, 다른 자리 [異位] 는 아들과 어머니 [子母] 를 상징한다. 律은 아내를 취하고 呂는 아들을 낳는다.³¹⁾

30) 『啓蒙傳疑』「本圖書」第一, “漢志, 同類娶妻, 隔八相生, 此納音法也, 同類娶妻, 謂甲子支干, 皆陽則亢而無以兆其和, 故娶乙丑爲妻乙丑干辰, 皆陰也, 餘位竝同.”

31) 『周禮』卷23. 16b. “同位者象夫妻 異位者象子母 所謂律取妻 而呂生子也”.

즉 律은 陽에 속하여 남편이나 아들로 비유하고, 呂는 陰에 속하여 아내나 어머니로 비유하고 있다. 律이 呂를 낳는 것은 같은 자리에 있어 남편이 아내를 취하는 것 [律取妻] 이 되고, 呂가 律을 낳는 것은 다른 자리에 있어 어머니가 아들을 낳는 것 [呂生子] 으로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漢書』「律曆志」 律呂相生圖에 의하면 다음 그림5)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 5) 『漢書』「律曆志」의 律呂相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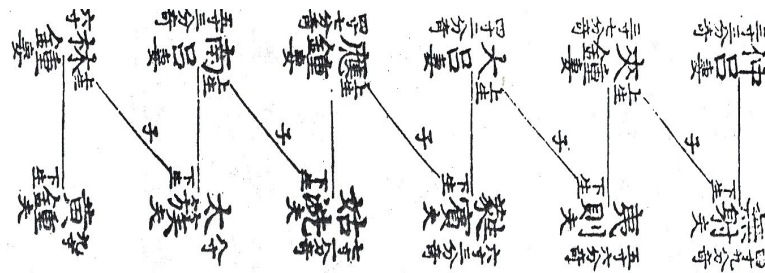


그림 5)와 같이 陽의 律은 陰의 呂에게 장가드는 것 [律娶妻] 으로 隔八下生하고 夫妻의 관계로 같은 위치 [同位] 에 있고, 陰의 呂는 陽의 律을 낳는 것 [呂生子] 으로 隔八上生하고 母子의 관계로 같은 위치 [異位] 에 있다.

2. 隔八相生

납음법에서 『漢書』「律曆志」의 隔八相生을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漢書』『律曆志』에 의하면 同類娶妻와 隔八相生은 納音法이다. 隔八相生은 甲子의 金은 앞으로 8을 건너 壬申의 金을 下生하고, 또 8을 건너 庚辰의 金을 下生한다. 그리고 왼쪽으로 운행하여 火로 향하고 火에 이르게 되는데 앞의 예에 따라 8을 건너 火가 下生하고, 火를 세 번 下生한 후 木에 이르고, 木을 세 번 下生한 후 水에 이르고, 水를 세 번 下生한 후 土에 이르고, 土를 세 번 下生한 후 金에 이르니 곧 한 바퀴 [周] 가 된다. 그리고 다시 甲午로부터 위에서부터 金을 上生하여 차례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8을 건너 子를 생한다는 것은 아래 위의 두 자리를 빼고 한 말이다. 8을 건너는 것 [隔八] 은 제8위가 아니고, 甲子로부터 癸酉에 이르기까지의 수가 모두 10이니 이것은 甲이 한 바퀴 도는 氣이다.³²⁾

이와 같이 隔八相生은 8을 건너 甲이 한 바퀴 도는 氣를 얻는 방법으로 甲子·乙丑의 金에서 壬申·癸酉의 金을 얻는 과정에서 甲子·乙丑·丙寅·丁卯·戊辰·己巳·庚午·辛未·壬申·癸酉 중에서 甲子과 癸酉를 빼면 隔八이 된다. 오행과 배합하고 각 오행을 세 번씩 생하는데 여기에서 3은 天·地·人의 3元이다. 金(甲子·乙丑→壬申·癸酉→庚辰·辛巳)→火(戊子·己丑→丙申·丁酉→甲辰·乙巳)→木(壬子·癸丑→庚申·辛酉→戊辰·己巳)→水(丙子·丁丑→甲申·己酉→壬辰·癸巳)→土(庚子·辛丑→戊申·己酉→丙辰·丁巳) 등의 순서로 子에서 시작하여 한 바퀴를 돈다. 또한 金(甲午·乙未→壬寅·癸卯→庚戌·辛亥)→火(戊午·己未→丙寅·丁卯→甲戌·乙亥)→木(壬午·癸未→庚寅·辛卯→戊戌·己亥)→水(丙午·丁未→甲寅·己卯)→壬戌·癸亥)→土(庚午·辛未→戊寅·己卯→丙戌·丁亥) 등의 순서로 午에서 시작하여 한 바퀴를 돈다. 陽은 子에서 나기 때문에 甲子, 戊子,

32) 『啓蒙傳疑』『本圖書』第一, “漢志, 同類娶妻, 隔八相生, 此納音法也, … 隔八相生, 謂甲子前八位下生壬申金, 又隔八下生辰金, 然後左行向火至火, 依前隔八生火, 火三下生而後至木, 木三下生而後至水, 水三下生而後至土, 土三下生而後至金, 乃爲一周, 復自甲午上生, 金依次而轉, 然隔八生子則除上下兩位而言也, 隔八, 非第八也, 若自甲子至癸酉通數乃共十矣, 此周甲之氣耳”.

壬子, 丙子, 庚子 등은 下生하고, 陰은 午에서 나기 때문에 甲午, 戊午, 壬午, 丙午, 庚午 등은 上生하는 것으로 음양의 조화를 나타내고 있다. 즉 하늘의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고, 땅의 기운은 올라감을 말한 것이다.³³⁾

예를 들어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가) 甲子·乙丑은 金으로 8을 건너 壬申·癸酉의 金을 下生하고, 또 8을 건너 庚辰·辛巳의 金을 下生한다. 金을 세 번 下生한 후 火에 이른다.
- 나) 戊子은 火로 8을 건너 丙申의 火를 下生하고, 또 8을 건너 甲辰·乙巳의 火를 下生한다. 火를 세 번 下生한 후 木에 이른다.
- 다) 壬子·癸丑은 木으로 8을 건너 庚申·辛酉의 木을 下生하고, 또 8을 건너 戊辰·己巳의 木을 下生한다. 木을 세 번 下生한 후 水에 이른다.
- 르) 丙子·丁丑은 水로 8을 건너 甲申·乙酉의 水를 下生하고, 또 8을 건너 壬辰의 水를 下生한다. 水를 세 번 下生한 후 土에 이른다.
- 미) 庚子은 土로 8을 건너 戊申·己酉의 土를 下生하고, 또 8을 건너 丙辰·丁巳의 土를 下生한다. 土를 세 번 下生한 후 金에 이른다.
- 바) 甲午·乙未는 金으로 8을 건너 壬寅·癸卯의 金을 上生하고, 또 8을 건너 庚戌·辛亥의 金을 上生한다. 金을 세 번 上生한 후 火에 이른다.
- 사) 戊午·己未는 火로 8을 건너 丙寅·丁卯의 火를 上生하고, 또 8을 건너 甲戌·乙亥의 火를 上生한다. 火를 세 번 上生한 후 木에 이

33) 강천봉, “계몽전의 연구”, 『퇴계학보』제17집, 퇴계학연구원, 1978. 96쪽.

른다.

-) 壬午·癸未는 木으로 8을 건너 庚寅·辛卯의 木을 上生하고, 또 8을 건너 戊戌·己亥의 木을 上生한다. 木을 세 번 上生한 후 水에 이른다.
- ㄱ) 丙午·丁未는 水로 8을 건너 甲寅·乙卯의 水를 上生하고, 또 8을 건너 壬戌·癸亥의 水를 上生한다. 水를 세 번 上生한 후 土에 이른다.
- ㄴ) 庚午·辛未은 土로 8을 건너 戊寅·己卯의 土를 上生하고, 또 8을 건너 丙戌·丁亥의 土를 上生한다. 土를 세 번 上生한 후 金에 이른다.

納音에서의 隔八相生은 律呂의 隔八相生은 용어는 같으나 그 내용은 다소 다르다. 律呂의 隔八相生은 『漢書』「律曆志」의 '律呂相生圖', 『樂學軌範』의 '律呂隔八相生應氣圖'에 잘 나타나 있다.

『漢書』「律曆志」의 '律呂相生圖'에 의하면 그림5)와 같이 律呂의 生成에 있어서 '隔八相生'은 본래의 자리를 포함하여 8번째 음을 얻게 되는데 양률은 8율을 건너 음의 음려를 下生하고, 음려는 8율을 건너 음의 양율을 上生한다. 陽律인 ①黃鍾은 8율을 건너 陰呂인 ⑧林鍾을 下生하고, ⑧林鍾은 8율을 건너 陽律인 ③太簇를 上生하고, ③太簇는 8율을 건너 陰呂인 ⑩南呂를 下生하고, ⑩南呂는 8율을 건너 陽律인 ⑤姑洗을 上生하고, ⑤姑洗은 8율을 건너 陰呂인 ⑫應鍾을 下生하고, ⑫應鍾은 8율을 건너 陽律인 ⑦蕤賓을 上生하고, ⑦蕤賓은 8율을 건너 陰呂인 ②大呂를 下生하고, ②大呂는 8율을 건너 陽律인 ⑨夷則을 上生하고, ⑨夷則은 8율을 건너 陰呂인 ④夾鍾을 下生하고, ④夾鍾은 8율을 건너 陽律인 ⑪無射을 上生하고, ⑪無

射은 8울을 건너 陰呂인 ⑥仲呂를 下生한다. 즉 양률은 음려를 隔八下生하고, 음려는 양률을 隔八上生한다.

『樂學軌範』에 의하면 隔八相生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무릇 12律이 相生하는 자리는 黃鍾에서 8울을 건너 林鍾에 이르고, 林鍾에서 8울을 건너 太簇에 이르고, 太簇에서 8울을 건너 南呂에 이르고, 南呂에서 8울을 건너 姑洗에 이르고, 姑洗에서 8울을 건너 應鍾에 이르고, 應鍾에서 8울을 건너 蕤賓에 이르는데 두루 미쳐 처음으로 돌아온다.³⁴⁾

律呂의 隔八相生은 다음 그림 6)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다.

그림 6) 律呂隔八相生應氣圖³⁵⁾



34) 成倪 등, 『樂學軌範』 卷1. 6b. “凡十二律相生之位 自黃鍾之律數八至林鍾 林鍾數八至太簇 太簇數八至南呂 南呂數八至姑洗 姑洗數八至應鍾 應鍾數八至蕤賓 周而復始”

35) 成倪 등, 『樂學軌範』 卷1. 12a.

위 그림 6) 『樂學軌範』 「律呂隔八相生應氣圖」에 의하면 12율은 隔八相生에 의하여 본래의 자리를 포함하여 8번째 음을 얻게 되는데 양율은 8율을 건너 음려를 낳고, 음려는 8율을 건너 양율을 낳는다는 것이다. 즉

- ① 黃鍾은 8율을 건너 [隔八] 陰呂인 ⑧林鍾을 생하고
- ⑧ 林鍾은 8율을 건너 [隔八] 陽律인 ③太簇를 생하고,
- ③ 太簇는 8율을 건너 [隔八] 陰呂인 ⑩南呂를 생하고,
- ⑩ 南呂는 8율을 건너 [隔八] 陽律인 ⑤姑洗을 생하고,
- ⑤ 姑洗은 8율을 건너 [隔八] 陰呂인 ⑫應鍾을 생하고,
- ⑫ 應鍾은 8율을 건너 [隔八] 陽律인 ⑦蕤賓을 생하고,
- ⑦ 蕤賓은 8율을 건너 [隔八] 陰呂인 ②大呂를 생하고,
- ② 大呂는 8율을 건너 [隔八] 陽律인 ⑨夷則을 생하고,
- ⑨ 夷則은 8율을 건너 [隔八] 陰呂인 ④夾鍾을 생하고,
- ④ 夾鍾은 8율을 건너 [隔八] 陽律인 ⑪無射을 생하고,
- ⑪ 無射은 8율을 건너 [隔八] 陰呂인 ⑥仲呂를 생한다.

이와 같이 12율은 ①黃鍾[宮, 11월, 子] → ⑧林鍾[徵, 6월, 未] → ③太簇[商, 정월, 寅] → ⑩南呂[羽, 8월, 酉] → ⑤姑洗[角, 3월, 辰] → ⑫應鍾[變宮, 10월, 亥] → ⑦蕤賓[變徵, 5월, 午] → ②大呂[12월, 丑] → ⑨夷則[7월, 申] → ④夾鍾[2월, 卯] → ⑪無射[9월, 戌] → ⑥仲呂[4월, 巳]의 순으로 隔八相生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隔八相生은 양율은 8율을 건너 음려를 생하고, 음려는 8율을 건너 양율을 생한다.

隔八하게 되면 원래의 자리 수를 포함해서 8이므로 7을 더해서 그 수에 맞는 율을 구하게 된다. 그런데 계산한 수가 12보다 많은 수가 나

오면, 12울이 12번째 울까지 구성되어 있으므로 12를 빼서 수를 구한다. 그러므로 12울 안에서 울을 구하게 되고, 이것은 순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⁶⁾

3. 六十甲子 納音과 60聲

퇴계는 楊輝의 六十甲子 納音起例를 들어 納音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楊輝의 六十甲子 納音起例에 의하면 甲, 己, 子, 午는 9이다. 그 수를 모두 더해서 5가 넘으면 나머지 수를 세어서 納音을 명한다. 대개 金과 木은 스스로 소리가 나므로 木은 3, 金은 4로 본래의 수를 사용하고, 水가 土를 만나면 소리가 나고, 火가 水를 만나면 소리가 나고, 土가 火를 만나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火는 水의 수인 1을 사용하고, 水는 土의 수인 5를 사용하고, 土는 火의 수 2를 써서 音으로 삼는다.³⁷⁾

위와 같이 天干과 支持에는 각각 先天數를 나타내고 있다. 즉 甲, 己, 子, 午의 선천수는 9, 乙, 庚, 丑, 未의 선천수는 8, 丙, 辛, 寅, 申의 선천수는 7, 丁, 壬, 卯, 酉의 선천수는 6, 戊, 癸, 辰, 戌의 선천수는 5, 巳亥의 선천수는 4이다. 납음은 60갑자에 음양의 간지 4개를 단위로 하여 4개의 간지의 수를 더한 수를 5로 나눈 후 나머지 수로 납음을 정하고, 단 5로 나누어 나머지가 없으면 土의 수인 5로 납음을 정한다.

36) 정혜임, 『율려와 주역』, 소강출판사, 2007. 97쪽.

37) 『啓蒙傳疑』 「本圖書」第一, “楊輝 六十甲子納音起例: 用甲己子午九積數成之數, 滿五去之, 以零數而命納音, 凡金木自有聲, 用木三金四本數, 水遇土而有聲, 火遇水而有聲, 土遇火煖則有聲, 故火用水數一, 水用土數五, 土用火數二爲音也.”

木과 金은 스스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木은 木의 河圖수인 3을 사용하고, 金은 金의 河圖수 4를 사용한다. 팔음 중 木部는 拍, 柷, 敔 등으로 나무 자체로 소리가 나고, 金部는 編鐘, 特鐘, 方響 등으로 쇠 자체로 소리를 낸다. 그러나 土部는 埙, 缶 등으로 불 [火] 로 구워야 악기로 만들어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土는 火의 河圖수 2를 사용하는데 火生土로 土와 火는 서로 생한다. 물 [水] 은 흙 [土] 을 만나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水는 土의 河圖수 5를 사용하는데 土克水로 土와 水는 서로 극한다. 또한 불 [火] 은 물 [水] 을 만나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火는 水의 河圖수 5를 사용하는데 水克火로 水와 火는 서로 극한다. 납음의 오음은 스스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과 스스로 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을 구분하여 스스로 소리를 낼 수 있는 木音과 金音은 河圖수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스스로 소리를 낼 수 없는 土音, 水音, 火音은 相生과 相剋의 관계로 나타나는 오행의 하도수를 빌려서 납음수로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하도수는 공상 각치우의 오음에 해당하는 수화목금토의 오행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반면 납음수는 수화목금토 오행과 수화목금토의 오음을 바로 연결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목과 금의 음은 각각 하도수 3과 4를 사용하지만 화, 수, 토의 음은 오행상생과 상극을 통하여 얻어지는 음의 수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60甲子에 대한 納音의 수를 계산하여 納音五行으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표 3〉 60甲子와 納音五行

干支	甲子	乙丑	丙寅	丁卯	戊辰	己巳	庚午	辛未	壬申	癸酉	甲戌	乙亥
納音數	9+9+8+8-(5×6)=4		7+7+6+6-(5×5)=1		5+5+9+4-(5×4)=3		8+9+7+8-(5×6)=2		6+7+5+6-(5×4)=4		9+5+8+4-(5×5)=1	
納音五行	金		火		木		土		金		火	
干支	丙子	丁丑	戊寅	己卯	庚辰	辛巳	壬午	癸未	甲申	乙酉	丙戌	丁亥
納音數	7+9+6+8-(5×5)=5		5+7+9+6-(5×5)=2		8+5+7+4-(5×4)=4		6+9+5+8-(5×5)=3		9+7+8+6-(5×5)=5		7+5+6+4-(5×4)=2	
納音五行	水		土		金		木		水		土	
干支	戊子	己丑	庚寅	辛卯	壬辰	癸巳	甲午	乙未	丙申	丁酉	戊戌	己亥
納音數	5+9+9+8-(5×6)=1		8+7+7+6-(5×5)=3		6+5+5+4-(5×3)=5		9+9+8+8-(5×6)=4		7+7+6+6-(5×5)=1		5+5+9+4-(5×4)=3	
納音五行	火		木		水		金		火		木	
干支	庚子	辛丑	壬寅	癸卯	甲辰	乙巳	丙午	丁未	戊申	己酉	庚戌	辛亥
納音數	8+9+7+8-(5×6)=2		6+7+5+6-(5×4)=4		9+5+8+4-(5×5)=1		7+9+6+8-(5×5)=5		5+7+9+6-(5×5)=2		8+5+7+4-(5×4)=4	
納音五行	土		金		火		水		土		金	
干支	壬子	癸丑	甲寅	乙卯	丙辰	丁巳	戊午	己未	庚申	辛酉	壬戌	癸亥
納音數	6+9+5+8-(5×5)=3		9+7+8+6-(5×5)=5		7+5+6+4-(5×4)=2		5+9+9+8-(5×6)=1		8+7+7+6-(5×5)=3		6+5+5+4-(5×3)=5	
納音五行	木		水		土		火		木		水	

그리고 음악에서 60聲은 12律呂에 각각 5聲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聲이 宮·商·角·變徵·徵·羽·變宮 등의 음계를 구성하면 60調를 이룬다. 『律呂新書』와 『樂學軌範』에 전하는 60調는 다음 그림 7)~그림 8)과 같다.

그림7) 『律呂新書』 六十調圖

夾鐘羽	仲呂徵	夷則角	無射商	黃鐘宮		六十調圖第九 鄭氏以周禮淮南子禮記 氏註孔氏正義定
夾正	仲正	夷正	無正	黃正	官	
仲正	林變	南變	黃變	大正	商	
林變	南變	黃變	太變	姑正	角	
南變	應變	太變	姑變	蕤正	變徵	
無正	黃變	夾變	仲變	林正	徵	
黃變	太變	仲變	林變	南正	羽	
太變	姑變	林變	南變	應正	變宮	

그림8) 『樂學軌範』 六十調

羽調	徵調	角調	商調	官調		六十調 古正律星書半聲未嘗 於本字只加半字別書之繁 於下變律未嘗半聲未嘗 正律星書半聲未嘗
夾正	仲正	夷正	無正	黃正	官	
仲正	林變	南變	黃變	太正	商	
林變	南變	黃變	太變	姑正	角	
南變	應變	太變	姑變	蕤正	變徵	
無正	黃變	夾變	仲變	林正	徵	
黃變	太變	仲變	林變	南正	羽	
太變	姑變	林變	南變	應正	變宮	

『律呂新書』에 의하면

12율이 돌아가며 서로 宮이 되고 각각 7聲이 있어서 모두 84성이 된다. 宮聲 12, 商聲 12, 角聲 12, 徵聲 12, 羽聲 12로 함께 60聲인데, 이것이 60調가 된다. 變宮 12는 羽聲의 뒤와 宮聲의 앞에 있고, 變徵 12는 角聲의 뒤와 徵聲의 앞에 있어 그 變宮은 宮이되 宮을 이루지 못하고, 變徵는 徵이되 變徵를 이루지 못하여 이 24聲은 調가 될 수 없다. 黃鐘宮에서 夾鐘羽까지는 모두 黃鐘으로 곡조를 시작하고 끝난다. 大呂宮에서 姑洗羽까지는 모두 大呂로 곡조를 시작하고 끝난다. 太簇宮에서 仲呂羽까지는 모두 太簇로 곡조를 시작하고 끝난다. 夾鐘宮에서 蕤賓羽까지는 모두 夾鐘으로 곡조를 시작하고 끝난다. 姑洗宮에서 林鐘羽까지는 모두 姑洗으로 곡조를 시작하고 끝난다. 仲呂宮에서 夷則羽까지는 모두 仲呂로 곡조를 시작하고 끝난다. 蕤賓宮에서 南呂羽까지는 모두 蕤賓으로 곡조를 시작하고 끝난다. 林鐘宮에서 無射羽까지는 모두 林鐘으로 곡조를 시작하고 끝난다. 夷則宮에서 應鐘羽까지는 모두 夷則

으로 곡조를 시작하고 끝난다. 南呂宮에서 黃鐘羽까지는 모두 南呂로 곡조를 시작하고 끝난다. 無射宮에서 大呂羽까지는 모두 無射으로 곡조를 시작하고 끝난다. 應鐘宮에서 太簇羽까지는 모두 應鐘으로 곡조를 시작하고 끝난다. 이것이 60調이다. 60調는 곧 12律이다. 12律은 곧 하나의 黃鐘이다. 黃鐘이 12律을 낳고, 12律이 5聲과 2變을 낳고, 5聲이 각각 버리가 되어 60調를 이루는데, 60調는 모두 黃鐘을 三分損益하여 변한 것이다. 宮·商·角의 36調는 老陽이고 徵와 羽의 24調는 老陰이다. 調가 이루어지고 陰陽이 구비되어 있다.”³⁸⁾

위와 같이 『律呂新書』에 의하면 60聲은 12律에 5聲이 각각 버리가 되어 宮聲 12, 商聲 12, 角聲 12, 徵聲 12, 羽聲 12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2律은 黃鐘, 大呂, 太簇, 夾鐘, 姑洗, 仲呂, 蕤賓, 林鐘, 夷則, 南呂, 無射, 應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2律 중 기본음은 黃鐘이고 삼분손익법에 의하면 삼분손익하면 8울 위의 음을 얻고 삼분익일을 하면 6울 아래의 음을 얻는데 양울은 음려를 낳고, 음려는 양률을 낳는다. 5聲은 宮·商·角·徵·羽이다. 宮聲 12는 黃鐘宮, 大呂宮, 太簇宮, 夾鐘宮, 姑洗宮, 仲呂宮, 蕤賓宮, 林鐘宮, 夷則宮, 南呂宮, 無射宮, 應鐘宮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商聲 12는 黃鐘商, 大呂商, 太簇商, 夾鐘商, 姑洗商, 仲呂商, 蕤賓商, 林鐘商,

38) 蔡元定, 『律呂新書』 卷1. 「律呂本源」 六十調圖 第9-26a~27a, “案十二律旋相爲宮各有七聲 合八十四聲 宮聲十二 商聲十二 角聲十二 徵聲十二 羽聲十二 凡六十聲爲六十調 其變宮十二 在羽聲之後 宮聲之前 變徵十二 在角聲之後 徵聲之前 宮不成宮 徵不成徵 凡二十四聲 不可爲調 黃鐘宮至夾鐘羽 並用黃鐘起調 黃鐘畢曲 大呂宮至姑洗羽 並用大呂起調 大呂畢曲 太簇宮至仲呂羽 並用太簇起調 太簇畢曲 夾鐘宮至蕤賓羽 並用夾鐘起調 夾鐘畢曲 姑洗宮至林鐘羽 並用姑洗起調 姑洗畢曲 仲呂宮至夷則羽 並用仲呂起調 仲呂畢曲 蕤賓宮至南呂羽 並用蕤賓起調 蕤賓畢曲 林鐘宮至無射羽 並用林鐘起調 林鐘畢曲 夷則宮至應鐘羽 並用夷則起調 夷則畢曲 南呂宮至黃鐘羽 並用南呂起調 南呂畢曲 無射宮至大呂羽 並用無射起調 無射畢曲 應鐘宮至太簇羽 並用應鐘起調 應鐘畢曲 是爲六十調 六十調卽十二律也 十二律 卽一黃鐘也 黃鐘生十二律 十二律生五聲二變 五聲各爲綱紀 以成六十調 六十調 皆黃鐘損益之變也 宮商角三十六調老陽也 其徵羽二十四調老陰也 調成而陰陽備也”

夷則商, 南呂商, 無射商, 應鐘商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角聲 12는 黃鐘角, 大呂角, 太簇角, 夾鐘角, 姑洗角, 仲呂角, 蕤賓角, 林鐘角, 夷則角, 南呂角, 無射角, 應鐘角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徵聲 12는 黃鐘徵, 大呂徵, 太簇徵, 夾鐘徵, 姑洗徵, 仲呂徵, 蕤賓徵, 林鐘徵, 夷則徵, 南呂徵, 無射徵, 應鐘徵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羽聲 12는 黃鐘羽, 大呂羽, 太簇羽, 夾鐘羽, 姑洗羽, 仲呂羽, 蕤賓羽, 林鐘羽, 夷則羽, 南呂羽, 無射羽, 應鐘羽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60聲을 바탕으로 宮, 商, 角, 變徵, 徵, 羽, 變宮의 음계를 만들어 60調가 이루어진다. 60調 중 宮調12·商調12·角調12의 36調의 36은 老陽의 策數이고, 徵調12와 羽調12의 24調의 24는 老陰의 策數이다.

그리고 그림 7) 『律呂新書』六十調圖와 같이 黃鐘宮調는 黃鐘이 宮聲이 되는 調로 黃 [宮: 正], 大³⁹⁾ [商: 正], 姑 [角: 正], 蕤 [變徵: 正], 林 [徵: 正], 南 [羽: 正], 應 [變宮: 正]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두 正으로 되어 있다. 無射商調는 無射이 宮聲이 되고 黃鐘이 商聲이 되는 調로 無 [宮: 正], 黃 [商: 變半], 太 [角: 變半], 姑 [變徵: 變半], 仲 [徵: 半], 林 [羽: 變半], 南 [變宮: 變半]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夷則角調는 夷則이 宮聲이 되고 黃鐘이 角聲이 되는 調로 夷 [宮: 正], 無 [商: 正], 黃 [角: 變半], 太 [變徵: 變半], 夾 [徵: 半], 仲 [羽: 半], 林 [變宮: 變半]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仲呂徵調는 仲呂가 宮聲이 되고 黃鐘이 徵聲이 되는 調로 仲 [宮: 正], 林 [商: 變], 南 [角: 變], 應 [變徵: 變], 黃 [徵: 變半], 太 [羽: 變半], 姑 [變宮: 變半]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夾鐘羽調는 夾鐘이 宮聲이 되고 黃鐘이 羽聲이 되는 調로 夾 [宮: 正], 仲 [商: 正], 林 [角: 變], 南 [變徵: 變], 無 [徵:

39) 大는 太와 같다.

正], 黃 [羽: 變半], 太 [變宮: 變半]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半은 半聲으로 한옥타브 높은 淸聲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음은 正과 變으로 구분한다.⁴⁰⁾

즉 黃鐘의 5조는 黃鐘이 宮聲이 되면 黃鐘宮調가 되고, 黃鐘이 商聲이 되면 無射商調가 되고, 黃鐘이 角聲이 되면 夷則角調가 되고, 黃鐘이 徵聲이 되면 仲呂徵調가 되고, 黃鐘이 羽聲이 되면 夾鐘羽調가 된다. 이것을 之調式이라고 한다. 之調式은 律名+聲名에서 律名은 宮이 되고 宮·商·角·徵·羽의 聲名에 맞는 律名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樂學軌範』에 의하면

律에는 12聲이 있는데 다만 7聲만을 사용한다. 12律이 돌아가며 5調가 되어 60調를 이룬다. 우리나라에는 律을 사용하는데 雅樂에는 7聲을 사용하고, 俗樂에는 2變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5聲만을 사용한다. 聲에는 淸濁이 있고, 下五, 下四, 下三, 下二, 下一은 濁聲의 宮·商·角·徵·羽이다. 宮, 上一, 上二, 上三, 上四 등은 淸聲의 宮·商·角·徵·羽이다. 지금 60調의 각 律 아래에 나누어 上下二之法을 써 넣어 보기에 편리하게 하였다.⁴¹⁾

40) 宮은 언제나 正이 된다. 그리고 宮과 商의 사이가 黃과 太의 사이로 204cents와 같으면 商이 正이 되고 다르면 變이 된다. 商과 角의 사이가 太와 姑의 사이로 204cents와 같으면 角이 正이 되고 다르면 變이 된다. 角과 變徵의 사이가 姑와 蕤의 사이로 204cents와 같으면 變徵가 正이 되고 다르면 變이 된다. 變徵와 徵의 사이가 蕤와 林의 사이로 90cents와 같으면 徵가 正이 되고 다르면 變이 된다. 徵와 羽의 사이가 林과 南의 사이로 204cents와 같으면 羽가 正이 되고 다르면 變이 된다. 羽와 變宮의 사이가 南과 應의 사이로 204cents와 같으면 變宮이 正이 되고 다르면 變이 된다. 12울려사이의 간격을 cent로 나타내면 黃←(114cents)→大←(90cents)→太←(114cents)→夾←(90cents)→姑←(114cents)→仲←(90cents)→蕤←(90cents)→林←(114cents)→夷←(90cents)→南←(114cents)→無←(90cents)→應←(90cents)→蕩 등과 같다.

41) 成倪 등, 『樂學軌範』 卷1. 4b, “按律有十二聲 而只用七聲 旋爲五調以成六十調 我國用

위와 같이 『樂學軌範』에 의하면 12律이 돌아가며 5調가 되어 60調를 이룬다. 12律은 黃, 大, 太, 夾, 姑, 仲, 蕤, 林, 夷, 南, 無, 應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음악 중 雅樂에는 宮·商·角·變徵·徵·羽·變宮의 7聲을 사용하고, 俗樂에는 2變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宮·商·角·徵·羽의 5聲만을 사용한다. 五音略譜⁴²⁾는 宮·商·角·徵·羽의 5聲에 기보되어 있는데 下五는 濁宮, 下四는 濁商, 下三은 濁角, 下二는 濁徵, 下一은 濁羽에 해당하고, 宮은 淸宮, 上一은 淸商, 上二는 淸角, 上三은 淸徵, 上四는 淸羽에 해당한다. 그리고 下五와 宮, 下四와 上一, 下三과 上二, 下二와 上三, 下一과 上四 등은 淸과 濁으로 한 옥타브 관계를 같이 기보하고 있다.

그럼 8) 『樂學軌範』六十調 중 黃의 5調 중 宮調는 黃이 宮聲이 되는 調로 黃 [宮: 下五·宮], 太 [商: 下四·上一], 姑 [角: 下三·上二], 蕤 [變徵], 林 [徵: 下二·上三], 南 [羽: 下一·上四], 應 [變宮]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黃의 5調 중 商調는 無가 宮聲이 되고 潢이 商聲이 되는 調로 無 [宮: 下一·上四], 潢 [商: 下五·宮], 汰 [角: 下四·上一], 澣 [變徵], 泚 [徵: 下三·上二], 淋 [羽: 下二·上三], 浦 [變宮]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黃의 5調 중 角調는 夷가 宮聲이 되고 潢이 角聲이 되는 調로 夷 [宮: 下二·上三], 無 [商: 下一·上四], 潢 [角: 下五·宮], 汰 [變徵], 泔 [徵: 下四·上一], 泚 [羽: 下三·上二], 淋 [變宮]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黃의 5調 중 徵調는 仲이 宮聲이 되고 潢이 徵聲이 되는 調로 仲 [宮: 下三·上二], 林 [商: 下二·上三], 南 [角: 下一·上四], 應 [變徵], 潢 [徵: 下五·宮], 汰 [羽: 下四·上

律 雅樂則用七聲 俗樂則不用二變只使五聲 聲有淸濁 下五下四下三下二下一 濁宮商角徵羽也 宮上一上二上三上四 淸宮商角徵羽也 今於六十調各律之下別書上下一二之法以便觀覽

42) 세조 때 창안된 오음악보로서 下五, 下四, 下三, 下二, 下一, 宮, 上一, 上二, 上三, 上四, 上五 등으로 宮을 중심으로 하여 上下로 五음을 표기하는 기보법이다.

一], 澣 [變宮]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黃의 5調 중 羽調는 夾이 宮聲이 되고 潢이 羽聲이 되는 調로 夾 [宮: 下四·上一], 仲 [商: 下三·上一], 林 [角: 下二·上三], 南 [變徵], 無 [徵: 下一·上四], 潢 [羽: 下五·宮], 汰 [變宮]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樂學軌範』의 60調는 黃鍾調 중 宮調는 黃이 宮聲이 되고, 商調는 潢이 商聲이 되고, 角調는 潢이 角聲이 되고, 徵調는 潢이 徵聲이 되고, 羽調는 潢이 羽聲이 된다. 그 나머지 大呂調부터 應鍾調까지는 이와 같다. 그리고 五音略譜를 淸과 濁의 한 옥타브 관계로 宮·商·角·徵·羽의 5聲에 기보되어 특이하다.

V. 結 論

退溪 『啓蒙傳疑』의 五音六律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五音은 日을 주관한다. 五音은 五行의 音聲으로 五行 중 土는 五音 중 宮音이 되고, 金은 商音이 되고, 木은 角音이 되고, 火는 徵音이 되고, 水는 羽音이 된다. 五音이란 甲과 乙, 丙과 丁, 戊와 己, 庚과 辛, 壬과 癸의 10干에 배합하고 있다. 律呂에 있어서 5聲은 五行과 河圖의 수와 배합되어 있다. 즉 5聲 중 宮聲은 五行 중 土 [5와 10, 중앙], 商聲은 金 [4와 9, 서방], 角聲은 木 [3과 8, 동방], 徵聲은 火 [2와 7, 남방], 羽聲은 水 [1과 6, 북방] 등에 해당한다. 河圖에서는 水生木,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의 五行相生의 원리로 되어 있고, 천지자연의 이치에 연관되어 있다.

2. 六律은 辰을 주관한다. 즉 六律은 六陽律과 六陰呂를 지칭하고, 辰

은 6陽辰과 6陰辰을 지칭한다. 12律呂 중 ①黃鍾 ③太簇 ⑤姑洗 ⑦蕤賓 ⑨夷則 ⑪無射은 六陽律로서 각각 12辰 중 ①子 ③寅 ⑤辰 ⑦午 ⑨申 ⑪戌의 6陽辰에 배합된다. 그리고 12律呂 중 ②大呂 ④夾鍾 ⑥仲呂 ⑧林鍾 ⑩南呂 ⑫應鍾은 六陰呂로서 각각 12辰 중 ②丑 ④卯 ⑥巳 ⑧未 ⑩酉 ⑫亥의 6陰辰에 배합된다. 율리의 次序나 生成순서에 따라 6陰辰의 위치가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啓蒙傳疑』에서는 『樂書』와 같이 율리의 차서에 기준하여 六律과 六呂를 6陽辰과 6陰辰에 배합하고 있다.

3. 納音은 12辰과 5音의 배합에 의하여 60音으로 이루어진다. 甲子是 金, 丙子是 水, 戊子是 火, 庚子是 土, 壬子是 木 등으로 각 辰에 干을 합하여 納音五行을 낳는다. 납음이 金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金의 소리가 가장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하여 납음을 오행의 소리와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독특하다. 그리고 納音數에 따라 오행에 따르는 金音·火音·木音·水音·土音이 생기게 되는데 4개의 天干地支의 先天數를 합하여 5로 나누어 나머지로 사용한다. 木音과 金音은 스스로 소리가 나므로 각각 하도수 3과 4를 사용하지만 火音이나 水音이나 土音은 五行相生과 五行相剋을 통하여 얻어지는 소리를 바탕으로 수가 정해진다. 한국음악에서 60調는 12律이 돌아가며 서로 宮이 되어 12울에 5성이 각각 버리가 되어 宮聲 12, 商聲 12, 角聲 12, 徵聲 12, 羽聲 12 등 총 60聲으로 이루어져 있다. 60調 중 宮調 12·商調 12·角調 12의 36調의 36은 老陽의 策數이고, 徵調 12와 羽調 12의 24調의 24는 老陰의 策數이다.

4. 納音法에서의 '同類娶妻'는 律呂의 生成에서도 사용한다. 納音法에서는 陽의 干支가 陰의 干支와 짝하여 양에서 음으로의 일방적인 관계로 陰陽의 조화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律呂의 생성에서는 '律娶妻'와 '呂生子'로 설명하고 있다. 즉 陽의 律이 陰의 呂에게 장가드는 부부의 관계로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律娶妻-同位], 陰의 呂가 陽의 律을 낳

는 것으로 母子의 관계로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 [呂生子-異位] 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쌍방적인 관계로 음양의 조화를 나타내고 있다.

5. 納音法에서의 '隔八相生'은 律呂의 生成에서도 사용한다. 納音法에서 '隔八相生'은 10干 중에 위아래를 빼면 8을 건너게 된다는 의미로 陽은 子에서 나기 때문에 甲子, 戊子, 壬子, 丙子, 庚子 등은 下生하고, 陰은 午에서 나기 때문에 甲午, 戊午, 壬午, 丙午, 庚午 등은 上生하는 것으로 음양의 조화를 나타내고 있다. 즉 하늘의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고, 땅의 기운은 올라가는 천지의 조화를 말한 것이다. 즉 納音法에서는 甲子·乙丑은 金으로 8을 건너 [隔八] 壬申·癸酉의 金을 下生하고, 또 8을 건너 庚辰·辛巳의 金을 下生한다. 金을 세 번 下生한 후 火에 이른다. 戊子·己丑은 火로 8을 건너 丙申·丁酉의 火를 下生하고, 또 8을 건너 甲辰·乙巳의 火를 下生한다. 火를 세 번 下生한 후 木에 이른다. 壬子·癸丑은 木으로 8을 건너 庚申·辛酉의 木을 下生하고, 또 8을 건너 戊辰·己巳의 木을 下生한다. 木을 세 번 下生한 후 水에 이른다. 丙子·丁丑은 水로 8을 건너 甲申·乙酉의 水를 下生하고, 또 8을 건너 壬辰·癸巳의 水를 下生한다. 水를 세 번 下生한 후 土에 이른다. 庚子·辛丑은 土로 8을 건너 戊申·己酉의 土를 下生하고, 또 8을 건너 丙辰·丁巳의 土를 下生한다. 土를 세 번 下生한 후 金에 이른다. 甲午·乙未는 金으로 8을 건너 壬寅·癸卯의 金을 上生하고, 또 8을 건너 庚戌·辛亥의 金을 上生한다. 金을 세 번 上生한 후 火에 이른다. 戊午·己未는 火로 8을 건너 丙寅·丁卯의 火를 上生하고, 또 8을 건너 甲戌·乙亥의 火를 上生한다. 火를 세 번 上生한 후 木에 이른다. 壬午·癸未는 木으로 8을 건너 庚寅·辛卯의 木을 上生하고, 또 8을 건너 戊戌·己亥의 木을 上生한다. 木을 세 번 上生한 후 水에 이른다. 丙午·丁未는 水로 8을 건너 甲寅·乙卯의 水를 上生하고, 또 8을

건너 壬戌·癸亥의 水를 上生한다. 水를 세 번 上生한 후 土에 이른다. 庚午·辛未는 土로 8을 건너 戊寅·己卯의 土를 上生하고, 또 8을 건너 丙戌·丁亥의 土를 上生한다. 土를 세 번 上生한 후 金에 이른다. 그리고 律呂의 生成에 있어서 '隔八相生'은 본래의 자리를 포함하여 8번째 음을 얻게 되는데 양률은 8울을 건너 음의 음려를 下生하고, 음려는 8울을 건너 음의 양율을 上生한다. 즉 陽律인 ①黃鍾은 8울을 건너 [隔八] 陰呂인 ⑧林鍾을 下生하고, ⑧林鍾은 8울을 건너 陽律인 ③太簇를 上生하고, ③太簇는 8울을 건너 陰呂인 ⑩南呂를 下生하고, ⑩南呂는 8울을 건너 陽律인 ⑤姑洗을 上生하고, ⑤姑洗은 8울을 건너 陰呂인 ⑫應鍾을 下生하고, ⑫應鍾은 8울을 건너 陽律인 ⑦蕤賓을 上生하고, ⑦蕤賓은 8울을 건너 陰呂인 ②大呂를 下生하고, ②大呂는 8울을 건너 陽律인 ⑨夷則을 上生하고, ⑨夷則是 8울을 건너 陰呂인 ④夾鍾을 下生하고, ④夾鍾은 8울을 건너 陽律인 ⑪無射을 上生하고, ⑪無射은 8울을 건너 陰呂인 ⑥仲呂를 下生한다.

이상으로 퇴계는 『啓蒙傳疑』에서 五音·六律은 한국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五音·六律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五音과 五行·天干·河圖數의 관계, 六律·六呂과 6陽辰·6陰辰의 관계로 설명하는 기존문헌의 내용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퇴계는 이 五音六律에서 '同類娶妻'과 '隔八相生'의 원리를 통한 60甲子和 納音五行에 연결하고 있다. 이 '同類娶妻'과 '隔八相生'는 律呂生成의 '律娶妻', '隔八相生'과 관련되어 있다. 納音을 五行의 소리와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독특하다. 이로써 퇴계의 『啓蒙傳疑』에서 五音·六律을 漢代 象數學의 納音을 도입하여 설명함으로써 天地自然의 질서와 陰陽五行의 조화를 나타내는 독특한 退溪 象數學의 원리를 잘 나타내고 있다.

【참고문헌】

- 『啓蒙傳疑』
『尙書』, 『周書』
『素問入式運氣論奧』
『樂書』
『樂學軌範』
『呂氏春秋』
『易學啓蒙』
『律呂新書』
『周易』, 『繫辭傳』
『周易本義』
『增補文獻備考』
『漢書』, 『律歷志』
『淮南子』, 『時則訓』,
- 『유학대사전』, 유교사전편찬위원회, 1990.
김승동, 『역사상사전』, 부산대학교출판부, 1998.
강천봉, “계몽전의 연구”, 『퇴계학보』, 퇴계학연구원, 1974~1978.
김영남, “주자와 이퇴계의 주역해석에서 보이는 상수의 의미”, 『한국사상과 문화』 제11집, 수덕문화사, 2001.
엄연석, “이황의 《계몽전》과 상수역학”, 『한국사상과 문화』 제11집, 수덕문화사, 2001.
임병학, “퇴계의 하도낙서론과 그 성리학적 의의”,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46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0.
정병석, “주역에 대한 퇴계의 의리적 관점”, 『퇴계학보』 제115집, 퇴계학연구원, 2004.
정해임, 『울려와 주역』, 소강출판사, 2007.

Abstract

The Study on 5 Tones and 6 Yuls in Toegye 『Gemongjeoneui』

Chung, Hae-lm

『Gemongjeoneui』 is the book, attached the description and comments on 『Yeokhakgyeomong』 and published by Lee-hwang in the Joseon Dynasty in 1557. The contents of 5 Tones and 6 Yuls on 『Gemongjeoneui』 are as in the following. 6 Yuls organized by the Sin. In other words, 6 Yuls mean 6 yang Yuls of Hwangjong, Taizhu, Goseon, Yubin, Yichik, and Muyeok, and 6 yin Ryeos of Dairyeo, Hyeopjong, Jungryeo, Limjong, Namryeo, and Eungjong. 5 Tones organized by the day. 5 Tones are the tones of the 5 primary substances of metal, wood, water, fire, earth. Nap Tone is composed of 60 tones by the combination of 12 Sin and 5 Tones. Gyeokpalsangsaeng, Dongryuchwicheo. As a result, Toegye explains 5 Tones and 6 Yuls by the introduction of figure-mathematics in Han period and shows the unique principle of Toegye figure-mathematics reflecting the order of heaven and the harmony of yin and yang, and 5 primary substances in 『Gemongjeoneui』.

Key Word

5 Tones, 6 Yuls, Nap Tone, Gyeokpalsangsaeng, Dongryuchwicheo

- 논문투고일 : 2013.12.11. 심사완료일 : 2014.2.11. 게재결정일 : 2014.2.14.